

## —— 韓國의 生産力에 中共期待? ——

### —— 整頓되어가는 周邊情勢 ——

83年の韓國은 畚難의 한해였으나 韓國이 處해 있는 客觀情勢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前途는 양양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中共이 韓國의 高레벨生産力에 期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中共은 元來 共產國家이다. 더우기 오늘날 그것이 原則대로의 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첫째로, 오늘의 鄧小平王朝의 根本哲學은 儒敎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共產國에 있어서 孔子를 信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其實은 움직이기 어려운 影響을 지니고 있으며 이點 世界唯一이라고 할 수 있는 儒敎國인 韓國과 通하는 것이 있다. 그외에도 共產主義에 失敗하고 있음을 스스로 認定하고 資本主義를 배우려는 事實은 共產主義로부터의 脫出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中共이 外交上에 있어 公式적으로 取하는 態度와 實際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다는 點이다. 例로 中共이 그 貧困으로부터의 脫却을 爲해 現在 廣州地域에 있어서는 資本主義 그대로의 施政을 하고 있다. 그리고 通貨도 中共의 “元”보다 香港 “달러”가 主役을 이루고 있다.

中共은 理由 如何를 不問하고 鄧小平의 그 有名한 「검거나 회거나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이라」라는 말을 받아 들이고 있다.

이는 새삼스러운 일이 못된다. 나는 20余年 前の 日本과 中共의 險惡한 時代에 北京政府로부터 招請되어 中共을 訪問한 일이 있었다. 中共 各地를 돌아 보았으며 周恩來首相과도 만났다. 그當時 나도 周首相의 「共產主義國으로서 나가지 않으면 안될 苦

腦」를 強하게 느꼈던 것이다. 共產主義를 갖고서는 到底히 中共의 貧困을 救할 수는 없다. 따라서 資本主義 長點을 導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歸國하자 곧 中共人民을 飢餓로 부터 解放시키지 않으면 世界不和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東京電力의 木川田一隆社長에 그 實情을 傳하는 한편 周首相의 브레인 郭洙若文教科學院長에 紹介書翰을 쓴 것이 因緣이 되어 財界使節團이 成立 그 멤버에 新口鐵의 永野重雄社長 등이 參加하게 됨으로써 結局 寶山製鐵所를 建設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周首相을 밀어내기 위한 江青 毛首相夫人과 林彪將軍事件 등이 있었으나 그 難局을 克服하고 그 周首相의 心服인 鄧氏, 다시 그 心服의 趙紫陽主席과 胡耀邦總書記로 이어지면서 스크럼을 찼다.

이들에게 부과된 것은 現實로 國富를 盛하게 하며 反周, 反鄧一派의 反擊을 實質적으로 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한편 中共이 이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中共 周邊에 있어서의 戰爭發生을 絶對로 回避해야 하며 蘇聯과의 友好를 持續하면서 國家間에 社會主義國同志라는 不戰의 環境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美國과의 關係는 台灣問題를 口實로 하여 非友好的인 印象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은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 그 目的을 達成한다는 函數關係가 있다.

本來는 台灣과의 關係를 円滿하게 하려는 뜻도 없지 않으나 原則적으로 許容될 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對立을 그 基本姿勢로 取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이라 할지라도 經濟적으로 가장 有利한 것을 選擇

한다는 것은 當然한 것. 그래서 韓國의 生産力을 無視해서는 안될 그 무엇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不可能한 것이 아니며 現在 서로 다투어 東西 二大陣營의 接觸이 되고 있는 美·蘇間에 있어서도 조차 蘇聯이 英國의 巨大한 穀物을 輸入하고 있는 事實로 미루어 본다면 韓國과의 사이에 國交를 樹立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그것은 或時 早急하게 實現되지는 않아도 交易은 반드시 實現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韓國은 中共에 對하여 國交를 積極的으로 希望하고 있는 事實로 보아서도 더욱 그러하다. 더우기 中共人

民들이 電化製品을 渴求하고 있다는 것은 鄧小平의 “검은 고양이”는 아니나 「電措」(電氣鼠取器)가 市中에 販賣되고 있는 例로서도 明白히 알 수 있다. 칼라텔레비전에도 非常한 關心을 갖고 있으나 뒤늦은 中共으로서의 先進國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事情에 있다. 또한 中共으로서도 多量한 일은 石炭을 비롯하여 많은 資源들이 韓國이나 日本에게는 必要한 것이 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아웅은 10億人民의 慾求라는 市場은 韓國에 展開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 2分講座 \***

— 原子力の 수수께끼 —  
超우라늄元素란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百餘年前에 러시아의 化學者 멘델 에프는 元素를 原子量의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順序를 나란히 하면 化學的 性質의 變化에 規則性이 있는 것을 發見, 周期律表를 發表했다.

그리고 原子番號는 當初는 原子量의 작은 것부터 順序로 큰 것으로 맞고 붙인 順序數이었으나, 原子力構造가 明白히 되자 이를 元素의 陽子數와 一致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空白의 元素도 發見됨으로써 오늘날에는 原子番號라고하면 陽子의 數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定常狀態에서는 軌道電子의 數도 原子番號와 같다는 뜻이다.

天然에 存在하는 元素로서는 原子番號 1號가 水素 2番號부터, 3番號부터 같은 順序로 陽子가 붙어나 陽子 92個의 92番號까지가 存在한다.

우라늄보다도 原子番號가 큰 元素, 즉 原子番號 93地以上の 元素을 總稱하여 超우라늄元素라고 부르며 1976年 現在로 106番까지 人工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같은 原子番號와 元素記號 名稱을 表로 表示한다.

이가운데 106番은 美國과 蘇聯에서 發見되었으나 同一한 元素인지 아닌지 疑問이 解決되지 않아 아직 命名되지 않았다.

超우라늄元素에 있어서는 1950年代에는 120番까지가 限度로 그 이상이 되면 自發 核分裂 하기 때문에 1兆分の 1秒以下の 壽命밖에 없어 事實上 存在하지 않는다는 學說이 有力하다. 1960年

代에는 原子番號 182附近과 148附近에 스티어블·아일렌드라는 安定한 領域이 있어서 安定한 元素가 存在할 수 있다는 學說이 나오고 있으나 現在로서는 發見되지 않고 있다.

超우라늄元素 가운데는 有效하게 利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어 폴루트늄238은 熱源·電源用에 폴루트늄 239는 核燃料, 아메리늄241, 캘리포늄252는 中性子源으로서 利用된다. 長期間 燃燒시킨 原子爐의 타다남은 찌꺼기인 使用済 核燃料에는 超우라늄元素가 포함되어 있으며 輸送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中性子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考慮한 輸送方法이 있어야 한다.

再處理工場에 옮겨진 使用済 核燃料로 부터는 플라토늄等 利用價値가 높은 物質이 抽出된다.

超우라늄元素

原子番號	元素番號	元 素 名
93	Np	넵투늄
94	Pu	플루트늄
95	Am	아메리슘
96	Cm	큐름
97	Bk	버크슘
98	Cf	캘리포르늄
99	Es	아인슈타인슘
100	Fm	페름
101	Nd	멘델레븀
102	No	노오베륨
103	Lf	노오벤슘
104	Rd	러저로븀
105	Hn	파아늄
106	(未定)	(未定)